

拓影으로 보아彫飾이 刻明하고 形態端雅한데 國內에서 個人所藏되고 있을 것으로 推定된다. 兩座座中心은 一三·七cm

八公山地藏寺

鄭永鎬

大邱市에서 桐華寺로 向하는 途中 公山面 百安洞에서 下車하여 徒歩로 約三·五km 東北方 地藏洞을 지나 八公山 露積峰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면 地藏寺 境內에 다다른다. 山麓에 位置한 寺域은 現在 거의 田畚化하여 뚜렷하지는 않으나 狹少한 이 곳 一帶의 山谷으로 미루어 그다지 規模가 큰 寺刹은 아니었으리라 推定되었다(더우기 前號에 紹介한 符仁寺에 比하여 볼 때). 허물어진 石築 위에는 西南向한 法堂址로 高約一〇cm의 石壇이 있고 그 前庭엔 東·西塔二基가 남아 있으며 이 곳에서 一〇m 西便에 木造建物 一棟이 있어 「地藏殿」과 「大雄殿」의 扁額 二枚가 달려 있는데 그 內部에 石佛坐像 一軀가 注目을 끌었다.

一、東·西三層石塔



第二卷 第一號 通卷 六號

新羅式一般型의 雙塔式伽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塔은 原位置이며 二塔이 同一한 手法이나 規模로는 東塔이 西塔보다 多少 큰데(註) 모두 完全치 못하고 一層屋蓋石까지 남아 있다. 그러나 中東塔이 比較

的 完全하므로 그樣式手法을 略記한다.

二層基壇인 下層은 埋沒되어 上層만이 注目되었다. 下基의 높이는 一六cm 二撐柱(幅一九·五cm)로 三區를 이루었다.

一邊長 一二〇cm의 下臺甲石 위에는 角과 四分圓의 「물딩」이 있고 그 위에 高七六cm 幅一五四cm의 上層基壇面石을 받고 있다. 上基의 面石은 幅一五cm의 一撐柱로 兩分하였고(一區 幅五·五cm, 兩端의 隅柱 幅一四·五cm) 上甲

石은(長一七五cm 厚一五cm) 副緣이 있고 그 甲石 위에는 三段의 屋身 副임이 塔身을 받고 있다. 初層屋身의 高六一cm 幅六四cm 兩端隅柱 幅一一cm이며 初層屋蓋의 落水面 推너 長一〇五cm, 厚五cm로 屋石받침은 四段이다(各層은 모두 四段). 二段의 屋身 副임(高一·五cm, 幅二·三cm) 위에 二層屋身(高一九cm, 幅四五·五cm)과 屋蓋가 있으며(落水面 推너 長八一·五cm 厚四·五cm) 三層屋蓋石은 轉落되어 基壇部에 殘存하였는데 그 上面에는 直徑八cm의 擦柱圓孔이 있다. 塔의 基壇 및 屋蓋 其他의 手法으로 보아 創建當時의 新羅末期로 推定되었는데 境內에 散在하는 屋蓋 屋身 基壇部材로서 復元이 可能할 것이다.



